

노인 맞춤형 주택개조서비스 추진배경 및 현황

이영광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사무관

주택개조서비스 추진 배경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21년 853만 7,000명(16.5%)에서 2025년에는 1,0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고령인구의 양적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정주권 향상은 중요한 과업이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건강을 유지하는 경우’와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이 각각 88.6%와 57.6%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당수의 노인은 건강 등의 이유로 주거 이동성이 낮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집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 AIP)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생애주기 특성상 노년기에는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적·인지적 기능이 저하되고 타인이나 도구 등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주보혜 외, 2020). P.B.Baltes & M.M.Baltes(1990)의 SOC 모델에 따르면 노인은 걷기 등 이동성이 저하될 경우 도구를 ‘선택(Selection)’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수품들을 선택한 도구 옆에 모아놓음으로써 ‘최적화(Optimization)’ 과정을 거쳐 자신의 상태를 ‘보완(Compensation)’하여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또 Carp & Carp(1984)의 유사 및 보완 모델 이론은 “개인은 일상생활에서 독립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노화로 인해 변화되는 생활방식과 신체기능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노인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인이 주거공간에서 안정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보건복지부는 2021년 4월부터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보건의료서비스·요양서비스·생활지원서비스·주거복지서비스로 구분되며, 주택개조서비스는 주거복지서비스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와 읍·면·동 사이에 중간지원조직(통합돌봄본부*)을 신설하여 현장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을 한다.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 주요 내용

2021년 7월 행안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에서는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였다. 이 매뉴얼은 노인이 지역사회 내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정성·자립도 등 정주성 향상을 목표로, 문헌 및 법령 검토와 주거복지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거쳐 완성되었다. 여기에는 ‘노인의 생활방식’, ‘신체기능 변화’, ‘주거공간별 장애요소’, ‘기준규격’, ‘품목별 단가’ 이상 다섯 기준이 담겨 있으며, 특히 주택개조는 서비스 신청부터 평

주택개조서비스 매뉴얼 5대 고려사항

구분	내용
생활방식	단독보행, 클러치 사용, 좌식생활, 휠체어 사용, 외상생활
신체기능 변화	감각기능(시각, 후각, 청각, 촉각), 신체·인지기능(기억력·사고력, 근력·지구력, 앉기/일어서기), 걸기, 생리기능(배설, 수면)
주거공간	주출입구·접근로, 현관, 복도·거실, 침실, 주방, 다용도실, 발코니, 화장실
주거공간별 규격	편의증진법, KS P 1509(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 치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품목별 단가	지원가능 품목별 규격에 따른 단가 적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1). 2021년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

가·사후관리까지 7단계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절차별 담당자(공무원) 및 전문가(작업치료사 등)와 수행기관(협동조합 등)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다.

고려사항 1: 노인의 생활방식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제공 계획 수립을 위해 노인의 현재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서비스 제공 계획은 생활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물리적 장애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현재 노인의 기능(신체·인지 등) 정도에 따라 향후 강화·유지·약화 가능성을 예측·분석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휠체어 사용 노인이 경험하는 물리적 장애요소는 상하부 도달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조작범위가 매우 좁다. 이러한 경우 조작범위를 고려하여 무선설비와 조작 기능가구 교체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구분	내용
단독보행	· 스스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단계 · 신체적 장애로 인한 기능저하가 있더라도 자립적인 일상생활 가능, 보행에 문제가 없는 상태
클러치 사용	· 일상생활 활동은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한 상태 · 보행할 수 있으나 하지 근력 저하로 낙상·전도를 예방하기 위해 지팡이·워커·클러치 등을 사용하는 상태
좌식생활	· 일상생활의 배설·입욕 등 신체적 활동 유지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상태 ·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앉은 상태(좌식)로 보내며, 이동은 가능한 상태
휠체어 사용	· 일상생활에서 배설·입욕 등 신체적 활동 유지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상태 · 휠체어를 사용한 이동이 가능한 상태
외상생활	· 일상생활의 전체적 부분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단계 ·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외상 상태로 보내며, 보행은 불가능한 상태

출처: 행정안전부. (2021). 2021년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

*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중간지원조직: 공무원(복지직, 간호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LH주거사정관, 민간인력(사레관리사, 물리치료사 등) 합동 근무

고려사항 2: 노인의 신체기능 변화

노인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감각·신체·인지·생리기능이 쇠퇴하여 실내외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할 위험률이 높아진다.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해 신체기능 변화를 예측하고 이해하여 주택개조서비스 제공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신체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다리와 허리가 약해지며, 일어서거나 앉을 때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다리를 들어올리는 힘이 약해져 단차에 걸려 넘어지기 쉽다. 이러한 경우 신체기능 변화를 고려하여 높이가 조절되는 의자를 갖추거나 손잡이를 설치하고 단차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로 주택 내 안전한 이동을 보장할 수 있다.

구분	주요 내용
감각기능	시각·후각·청각·촉각의 기능이 쇠퇴함
신체·인지기능	기억력·사고력, 근지구력, 양기·일어서기, 걸기 등의 기능이 쇠퇴함
생리기능	배설과 수면 등의 기능 상태가 나빠짐

출처: 행정안전부. (2021). 2021년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

고려사항 3: 주거 공간별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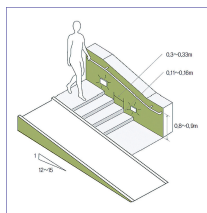
주택 내 안전한 생활과 이동을 위해 노인의 생활방식과 신체기능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거 공간별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동 동선과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주거 공간별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개조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각기능 약화, 신체기능 약화, 근·지구력 약화 등으로 인해 걷기나 화장실 이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주출입구와 접근로에 풋라이트·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해 안전한 이동을 지원한다. 현관의 경우 접이식 의자를 설치하여 앉아서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 복도와 거실에는 방으로 이동하는 경로에 턱이나 단차를 제거함으로써 낙상을 예방하고, 침실에는 전동식 가구를 설치하여 옷가지 등의 수납을 편하게 하도록 도울 수 있다. 화장실에는 미끄럼방지 패드를 깔거나 높낮이 조절 세면대와 샤워기, 손잡이, 샤워용 의자 등을 갖추어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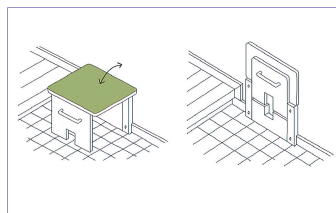
‘주택개조서비스’ 추진 현황

2021년 4월부터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참여 지역인 경기도 화성시와 강원도 춘천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주택개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내 거주 노인 및 가족과 주민에게 홍보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통합돌봄본부에서 신청을 받았다. 이어 현장조사를 통해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현장조사 때 노인의 생활방식이나 신체기능 변화와 주거 공간별 장애요소 등을 파악하여 최종 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회의에 활용하였으며, 서비스 제공



주출입구/접근로

출처: 행정안전부. (2021). 2021년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 김민순 외. (2011). Barrier-Free 주거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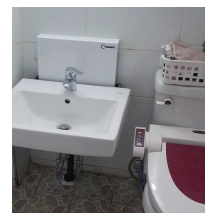
현관



복도·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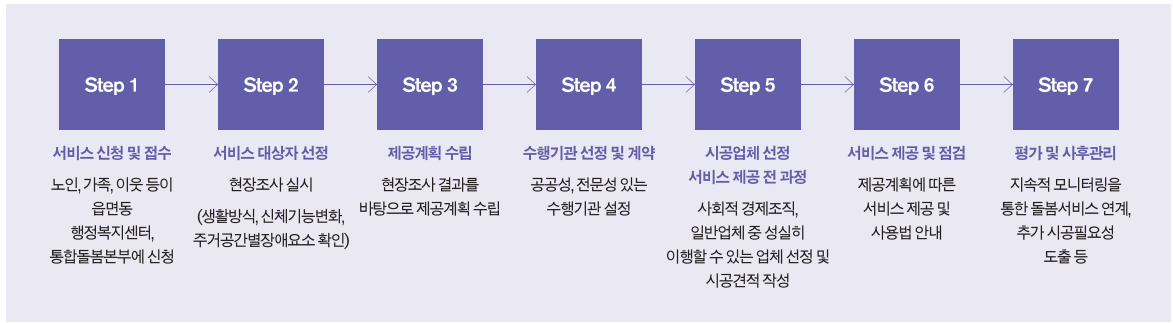


침실



화장실

주택개조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수행기관과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제공 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주택개조서비스 제공 사례(남자, 만 76세)를 살펴보면 우선 현장조사 참여자는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사정관 등 모두 3명이다, 이들은 대상자의 건강상태, 신체기능 변화, 대상자 욕구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단독보행은 가능하지만, 의족을 사용하고 있어 낙상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

직·간호직 공무원, 사례관리사, 건보공단 직원이 합동 돌봄회의를 진행하여 ▲현관·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베란다 문턱 제거 ▲센서등과 높이조절 샤워기 설치 등의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였다.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는 주택 내 활동이 보다 자유로워졌으며, 현관·화장실 입출입 시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현장조사 때 대상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고 식생활지원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 대상자 특성 성별/연령: 남 / 76세 생활양식: 단독주택 (원주, 원주 외곽) 주거환경: 임대주택 신체기능 정도: 기본적인 자립생활 가능 (의족, 허리통증 등)	주택개조 지원 현황 	주택개조서비스 제공내용		서비스 제공 전	서비스 제공 후
서비스 대상자 욕구조사 및 확인여의 결과		서비스 제공 전 	서비스 제공 후 	서비스 제공 후 개선된 점(개선 효과) ○ 현관 LED라이트를 설치로 인해 실내 밝음, 안전한 이동 및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되었음 ○ 베란다 문턱이 낮아져 입출입이 자유로워졌고, 사물함 저울거를 버릴 수 있음 ○ 관련하여 신발함 갈아신을 때마다 물안개였다. 지금은 안개방울이 날 수 없음 ○ 기존 불편하게 이용한 화장실이 입출입이 보다 안정적이고 사용법 배워서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만족도가 높음	
현장(욕구) 조사 단계 □ (건강상태) 당뇨, 허리통증, 왼쪽 무릎 등 통증 사용, 머리 이용하여 구기활동이 1년 정도 방문, 월급 100만 원에 육박으로 있음 → 단독보행은 가능한데, 신체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낙상 위험 있음 □ (현재사정) 고령임을 고려하였을 때 시가지가 어려워져 실내 낙상 위험 발견(감각)을 외 의족을 착용 □ (현재사정) 차, 지인, 도움을 받아 귀를 방문 하고 있으며, 지적 약력은 스스로 생활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집안일(청소, 식사준비 등) 수행 도움 필요 → 주택개조서비스 외 연계 가능 서비스 고려 대상		서비스 제공 전		서비스 제공 후	
중요 확인 사항 □ 생활방식, 신체기능의 변동 고려하였을 때, 부분도움이 필요한 대상 → 주택개조서비스 외 돌봄서비스 제공 필요 □ 돌봄(의족, 휠체어, 신체서비스) 사용, 시가지는 약화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내 실내생활, 출입시 낙상위험이 있음 □ 욕구조사, 가설 및 주거환경가 필요로 검토(단독) → 서비스 제공 결정, 현관 안전손잡이 설치, 베란다 문턱 제거, 연서등, 높이조절 샤워기 설치 등 지원		서비스 제공 후 서비스 제공 내용(현관) ○ 대상자 생활방식, 신체상태, 의족 착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편의이용에 어려움 있음 ○ 신발함 신고 받음 및 낙상사고가 우려됨 ○ 시각기능이 약화되어 여간 출입시 안전성 확보가 어려움 ⇒ 현관 방구락 안전손잡이 설치, 현관 조명 LED 교체(안전장 장애)		사후관리 □ (현관) 베란다 문턱 제거, 화장실 안전손잡이 높이조절 샤워기 설치, 현관 안전 손잡이 LED라이트를 설치로 인해 실내 밝음, 안전한 이동 및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되었음 □ (현상사정) 서비스 제공 후 100일 내 방문 □ (현상사정) 1회 □ 사후관리 분량확인 - 불평사항을 통해 관련된 내역과 실제 시공 내역 일치 여부 확인 - 이용 편의성, 만족도 등 확인 □ (현상사정)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서비스 지원 예정(연, 장소) 등	

주택개조서비스 제공 사례

주택개조서비스 제공 현황

구분	서비스 신청자(명)	서비스 제공 회의 결과(명)	최종 서비스 제공(명)
합계	235	216	44
화성	123	105	21
춘천	112	111	23

출처: 행정안전부, (2021). 2021년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 현황. 내부자료.

화성·춘천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개조서비스는 물리적 개념의 개조와 더불어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에도 신경 쓰고 있다.

현재까지 총 44명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었으며, 172명은 견적서 작성과 함께 서비스 제공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시공업체 1곳만 참여하고 있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많은 시공업체가 참여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나가며

행안부에서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발간한 목적은 노인이 현재의 거주지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물리적 공간 개조를 넘어 노인의 현재 상태에 맞춰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주택개조서비스에 대한 지역 노인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스스로 욕구를 표출하지 않더라도 필요 대상이 발굴되고 있다.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발견되는 다양한 욕구와 문제 등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여 노인의 지역사회 내 정주권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1 김인순 외. (2011). Barrier-Free 주거 매뉴얼. 한국장애인개발원.
- 2 보건복지부. (2018).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3 주보혜, 이선희, 임덕영, 김수정, 김혜진. (2020). 노인의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위한 주거지원과 서비스 연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4 행정안전부. (2021). 2021년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 현황.
- 5 행정안전부. (2021). 2021년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
- 6 Baltes, P. B., & Baltes, M. M. (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 7 Carp, F. M., & Carp, A. (1984). A complementary/congruence model of well-being or mental health for the community elderly. In *Elderly people and the environment* (pp. 279-336). Springer, Boston, MA.